

함평자연생태공원 야외 체험학습장 학생들에 인기

“장수풍뎅이·사슴벌레 곤충표본 호랑나비·희귀 잠자리도 있어요”

함평군이 운영하고 있는 함평자연생태공원 야외 체험학습장이 방학을 맞은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9월 말까지 함평자연생태공원 내 특별전시관에는 잠자리,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50여 종의 곤충표본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주에 선보이고 있는 잠자리 희귀종 22종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나비 애벌레를 비롯해 호랑나비, 산제비나비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야외학습장도 인기다.

나비를 알아서부터, 애벌레, 성충까지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고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을 가까이

멸종위기 동·식물 그리기 등 특별한 추억거리 담아가세요

서 보고 느낄 수 있어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달 말까지 열리고 있는 '제4회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지금까지 25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그리기 대회는 함평자연생태공원을 찾은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체험학습장에서 그림용지를 받아 공원에 그림을 그리면 된다.

함평군은 출품된 작품을 심사해

대상에 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에 전남도지사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광우 함평군 산림공원사업소장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어 큰 인기”라며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자연생태공원은 멸종위기 동·식물 27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서식지 외 보전기관 14호로 지정돼 이를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황윤학기자 hwang@



섬진강기차마을 시원한 물놀이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물놀이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나고 있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지난달 25일 개장한 기차마을 물놀이장은 3개의 풀장과 2개의 에어슬라이드 및 휴게시설을 갖추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곡성군 제공>

목포지역 중1 학생 둔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학교 배정시 통학에 대한 배려 부족”

목포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과 관련, 학부모들의 상당수는 통학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 선택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지와의 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목포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목포지역 중1 학부모 538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만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현행 배정 제도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만족도가 2.92점으로 ‘보통 이하’를 기록했다.

목포에서는 올해 초 남양신도시 내 옥암지구에 거주하는 학생 100여 명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목포시내가 아닌(전남도청 등이 들어선) 무안군 삼향면 남양신도시로 재배정해 달라’며 전학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원거리 배정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설문결과에 이같은 신도시 학부모들의 불만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행 중학교 배정제도에 대해서는 3점대 만족도를 기록해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58.7%가 ‘거

주지와의 거리’를 1순위로 꼽았으며, ‘학생의 희망’과 ‘학교시설을 포함한 교육환경’이 각각 2, 3순위를 차지했다.

배정된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이상’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의 열정과 전문성, 생활지도, 자녀의 학교 교육 만족도 측면에서 “배정된 학교

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다”고 답한 학부모가 많았다.

송승훈 연구원은 “배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 희망과 통학거리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우선 순위에는 의견이 분분했다”며 “하지만 통학거리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큰 만큼 통학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배정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p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순신대교 10일부터 보수작업

전남도, 11월말까지 포장 성능평가도

전남도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보수작업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보수작업과 함께 포장면에 대한 성능평가도 함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 준공한 이순신대교는 준공 전 여수세계박람회 임시 개통으로 말미암은 포장면 피로누적 등으로 일부 구간에서 균열이 발생해

지난달 응급복구를 한 바 있다.

전남도는 항구복구에 앞서 통과 차량의 주행성 향상과 안전을 위해 전 구간에 대해 육안조사와 비파괴 조사를 했다. 학계와 전문기관,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포장 성능평가는 11월 말까지 4개월에 걸쳐 수행된다.

정확한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보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 다.

이순신대교는 도로와 교량관리를 위해 전자자동차량정보관리시스템(WIM), 지진계, 풍향풍속계 등 300여종의 교량계측시스템이 구축돼 운영 중에 있다.

위광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보수기간에는 1개 차로를 차단,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차량 통행에 유의해야 한다”며 “국내 최장, 세계 4위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완도타워 효자 관광자원 ‘우뚝’

올 관광객 7만여명...입장료 수입만 1억원 육박

완도타워가 입장료 수입 증가 등 효자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7월 완도타워 입장객은 7만7739명으로

9138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려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늘었다.

65세 이상 무료 입장객 대신 완도타워를 찾은 젊은 층이 늘어 수입이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

완도타워 시설과 다도해일출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인원 830명이 투입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준공한 완도타워 전망층 높이는 51.4m로 밤에 완도 앞 바다에 쏟아내는 레이저쇼가 장관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TV 조선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